

between Art &
Business

VOL. 298 APR 2003 www.design.co.kr

DESIGN



특집 **디자이너들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

에코 기업, 에코 프로덕트, 에코 그래픽

4,500억의 디자인 전쟁, 참고서 시장

웃벳기 경쟁을 벌이는 광고 속 남성들

색스로 다시 쓴 뉴욕의 역사

삼성이 10년만에 C를 리뉴얼 한 이유



Boris Bally

버려진 폐기물에서 발견한 생활의 가치

한날 쓰레기에 불과했던 것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재생과 재활용'이라는 친환경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길 보리스 벨리는 희망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지나친 소비로 버려지는 수많은 쓰레기를 감소시키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버려진 폐기물을 아름다운 오브제로

일상의 모든 것들이 디자인의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다. 설사 그것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버려진 쓰레기일지라도, 제대로 다루기조차 힘든 고철 덩어리일지라도 말이다.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로 활동해 온 부모 밑에서 자란 보리스 벨리는 어린 시절부터 독특한 감성을 하여 성장했다.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퍼스트버그의 폐기물더미에서 뭔가 새로운 소재를 찾아내곤 했던 부친의 영향을 받아 그는 일찍부터 '평범하지 않은 소재'에 흥미를 가졌다. 카네기 멜론대학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스위스로 건너가 세공기술을 연마한 보리스 벨리는 다양한 메탈워크를 통해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주얼리 디자인에서 출발한 그를 오늘날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주목받게 한 것은 무엇보다 그가 다루는 '소재의 특별함' 때문이었다. 마치 부드러운 코르크처럼 자유자재로 메탈이라는 소재를 다루는 그의 숙련된 솜씨는 버려진 일루미늄 교통 표지판을 아름다운 타이포그래피 작품으로 변모시키고, 거기에 나뭇잎군 수많은 병뚜껑들은 새로운 오브제로 재창조되었다. 현대산업사회에 필요한 제품의 대량생산으로 소비자들이 버리고 버려졌던 디자인과는 달리, 그는 산업재품을 전통적인 수작업으로 창조하는데 주력했으며 그의 작업의 인기 자료는 화려하고 값비싼 소재가 아니라 쓰레기나 다름없는 교통 표지판 조각들, 병뚜껑, 폐기 동판, 구리 비수관, 전기줄 등의 '하찮은' 것들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이 '하찮은' 자료에 보내는 세계의 시선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미 그의 작품은 환경 친화적이면서 예술성이 뛰어난 디자인으로 주목받아 전세계 유수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내로라 하는 저널에서 앞 다퉈 그를 소개한 바 있다. 쓰레기나 다름없는 폐기물을 모아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인 '식문화'를 담아내는 타이포그래피 작품군으로 슬화시킨 그의 실험정신이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라

늘 새로운 소재를 찾아 다니는 보리스 벨리는 그가 다루는 재료가 그에게 창조적 영감을 제공하는 원천이자 늘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고 말한다. 버려진 재료를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 힘겹게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작품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한낱 쓰레기에 불과했던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재생과 재활용'이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길 그는 희망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지나친 소비와 낭비를 버려지는 수많은 쓰레기의 공해를 감소시키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뛰어난 공예품을 디자인하는 그의 손놀림과 사회적인 이슈를 결코 건드리지 않는 그의 디자인 철학은 오늘날 디자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세스와 새로운 소재를 끊임없이 탐구하라.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아야 한다.'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디자이너의 책임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으며 그것이 지금도 그가 버려진 폐기물 수집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다.

www.borisbelly.com | 글-인하연, 정은영 | 프리랜스 기자



02



01 버려진 교통표지판과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코르크 마개 등을 재활용하여 기능적이고도 아름다운 도시 폐기물을 디자인했다. 그의 디자인에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디자인에 놀라고 편안하고 안락한 기능에 또 한 번 놀랐다고 한다. 02 문화 재충을 교육 포스터를 사용하 여 제작한 '행운의 시어스'. 03 보리스 벨리가 그의 작품을 주제로 시골하는 것은 주로 버려진 교통표지판이나 일루미늄 캔, 병 뚜껑 등 폐기물이다. 시골은 그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보리스 벨리가 제작한 작품이다.





06



07



08

- 01 2000년에 무라 후미 내세워 디자인 박물관에서 열기 전시를 가졌던 것으로 총 21개의 작품이 전시되어 세월을 날려 보냈다. 그의 작품은 전세계에서 최대 전시를 가진 바 있다. 버려진 교통표지판과 알루미늄을 재활용하여 제작했다. 02 콜루첸렌트 대학병원 로비에 전시되었던 것으로 총 22개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버려진 교통표지판과 알루미늄이 주재료로 사용되었다. 03-05 재활용 교통 표지판과 알루미늄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작한 다양한 종류의 시리즈의 볼(bowl) 시리즈. 06 교통표지판을 활용한 트레이. 07 버려진 교통표지판과 스테인레스 스틸, 상채인 프레스가 기계 등을 재활용하여 제작한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의자. 08 알루미늄 버스 기사단 표지를 재활용하여 만든 나뭇잎 모자.



01. 03 재물을 앉우치며 만들 사용한 조명 작품. 02. 건. 토탑 'Gun Totem', 2001년 제. 캔버전스인 대. 4A.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Raised under the parents who were artist and designer, Boris Bally had special experiences in his childhood. His father, who always found his materials out of junk yard in Pittsburgh, Pennsylvania, influenced him to look for unfamiliar materials. After completing an intensive goldsmith apprenticeship in Swiss, Bally majored in metal arts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 and started to distinguish himself in the world of metal design. Among others, people were fascinated with his unique materials. In his hands aluminum scrap traffic signs are turned into tableware, and bottle caps on the streets into art objects. His products are made by handwork and his favorite materials are such 'worthless' things as broken traffic signs, bottle caps, copper plates and pipes, and electric wire. He changes these 'worthless' things into the works that are worth noticing; his artistic and environment-friendly designs were included in many museum collections and introduced by important journals in the world. Isn't it ironic that discarded junk were transformed into tableware products which symbolizes gluttonous culture of today? It is this kind of wit that the audience loves about his work. Bally says it has always been his materials that inspire and, at the same time, challenge him. Through the effort to change abandoned materials into new products, he hopes to raise people's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issues. If people find out how Bally's products were made, they might change into more environment-friendly people and practice recycling and reducing waste. Bally's design philosophy that never turns away from social issues challenges other designers. "Accept the challenge and make a commitment to discovering new processes, new materials and alternative ways to use them." He believes designers should encourage people to change their ideas and initiate action and that's why he won't stop collecting junk. Text by Roel Jung/Freelance Editor

“삶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출발점이다”

당신은 금속공예와 세공기술을 동시에 마스터한 아티스트로 백발 위크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주로 버려진 교통 표지판이나 병뚜껑 같이 재물을 수집하여 독특한 작업을 해왔는데 이 같은 소재를 즐겨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에게 영향을 준 특별한 인물이나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즐거움 우연”이라는 말로 나의 작업 스토리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린 시절 스위스 태생의 아티스트였던 어머니와 디자이너였던 아버지 사이에서 자란 나는 늘 피츠버그의 페가용이 속에서 어떻게 프로토타입이 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 그 분들이 즐겨 사용하던 재료가 바로 교통 표지판이었다. 2차 대전 후 스위스에서 자란 아이들은 모두 난비하지 않는 법을 철저히 배웠는데 할머니께서는 늘 “끝까지 써라, 다 닳을 때까지 써라, 가진 것을 활용하라, 없으면 없는 대로 해라”라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셨다. 그러한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재물을 소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8인치 알루미늄 판을 비롯 페기 동판, 구리 배수관, 전깃줄 같은 것들을 수집했다. (47) 갖고 있던 첫 작품을 허시점은 그 유명한 엔디 워홀의 형이 운영하던 피츠버그의 ‘폴 워홀 페가용’이었다)

더 특별한 사연은 처음으로 백닌로 바닥 기초층을 만들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닥 기초층의 내부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속을 채워야 했던 나는 바깥쪽에 양치 지국을 남기기 위해 손을 높이 쳐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갑자기 그 내부의 문이 날에 띄었다. 문장이 예상외로 옅고 느꼈던 나는 그 단순한 페가용의 문양에서 미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예술적인 영감을 받게 되었다. 그 때부터 ‘페기용과 표지판’ 디자인 실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작업을 좋아하게 되어 내 작업의 중심축이 되었다. 지금까지도 나는 이 작업이 옳은 일이며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디자인계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전통적인 수직업을 고집하는 아티스트로서 당신은 변화하는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디자이너들의 역할은 점차 지역중심이 되어가고 있고, 그 지역은 점점 더 글로벌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의 디자인이 더 널리 유통되고, 사용되고, 알려지면서 우리는 하나의 역할모델이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세대에게 디자인을 가르칠 때는 디자인뿐 아니라 소재와 과정에 대한 지식과 책임감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예를 들자면 이미 많은 이들이 사용 가능한 소재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술 습득뿐 아니라 디자인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적인 기술의 근본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기술의 발전은 디자인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으나 정신을 대체할 수는 없다. 나의 경우, 최상의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수작업을 통해서 얻고 있으며 컴퓨터나 다른 도구는 그 이후의 과정에 활용된다.

당신이 생각하는 디자이너의 바람직한 역할모델은 무엇인가? 디자이너들이 환경문제를 비롯한 사회적인 이슈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물론이다. 그게 바로 교통 표지판 같은 소재를 오랫동안 작품 소재로 활용해 온 근본이다. 디자이너는 늘 사회적 책임에 민감해야 한다. 재물을 소재를 활용하는 것에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삶과 디자인이 표준이 되는 진정한 수용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믿는다.

평범한 것이나 버려진 것을,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재료를 이용해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무언가를 창조해 보라. 별로 귀하지 않거나 일상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 온 재료를 사용하여 성공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지만 나는 늘 재료의 특성을 탐구하거나 새로운 사용방법으로 자라가하여 그 컨텍스트를 변형시키

고자 노력했다. 이 컨텍스트의 변형은 가치를 강조하는 하나의 층을 더해 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표지판의 경우를 예로 들면, 나는 거의 미스터리로 지경까지 그해픽을 추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누군가의 관심을 ‘이 작품에는 뭔가 친근한 구석이 있는데 그게 뭐지 모르겠군’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담아두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여 미소 짓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가 어떤 시절 자신이 흥성한 표지판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버려진 판들을 모아 만든 의자에 앉아 본 사람들이 처음 내뱉는 말은 “와, 진짜 편안한 걸”이라는 한 마디였다. 버려진 페기용이 우리에게 인락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처럼 어떤 방식이든 유용한 물건을 만들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디자인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하나 그 작업이 결코 가벼운 일을 것 디자인이 내가 믿어서는 안 될 책임이자 의무이다.

버려진 재물을 모아 사람들에게 예술적인 기쁨을 전하는 당신의 작업은 무척 흥미롭다. 그처럼 의미 있는 작업을 꾸준히 실행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무엇보다 소재 자체가 내게는 창조와 원천이자 결핍이었다. 코르크 병개, 교통 표지판 등을 수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나중에는 나의 피로를 피하려고 지발적으로 이 같은 재료를 가져다주는 마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씩 생겨나 그들의 환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게 되었다. 재활용제품의 표준화가 그 다음으로 힘든 점이었는데 이 모든 재료들이 순도나 무게, 그래픽 면에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코일라인에 함께 집어넣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걸 ‘Humanufacturing’ 과정이라 부르는데 내 공장의 직원들에게 스스로 재료를 대해 생각하고 반응하는 수직업계가 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었다. 이 친구들은 언젠가게라도 나를 뺀만 아니라 재미있는 농담과 얘기를 해주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생각하는 굿 디자인(good design)이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관점에서 굿 디자인이란 유용하고, 저렴하고, 재미있고, 스타일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와, 그가 정말 신났는데! 그걸 쪼개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단순히 작품의 아름다움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작품을 통해 미소 짓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본 특집은 지속가능한 미래, 희망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디자이너의 책임과 사명을 톤 가시킴과 기호되었다. 피피가 아닌 보본,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금 통시대를 살아가는 디자이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라.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고, 새로운 소재를 찾아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데 몰입력이 노력하라. 또한 사람들의 의식과 삶의 방식이 이러한 작업을 구해내서라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



보리스 바비(Boris Baby) 아티스트였던 아버지와 디자이너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금속공예를 배웠고 생장한 그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스코틀랜드에서 세공 기술을 연마했다. 후자의 디자이너로 출발한 그는 버려진 교통표지판, 병뚜껑, 페기용과 같은 재료를 수집하여 독특한 디자인으로 독특한 그의 작업세계를 구축했으며 현재 뉴욕에서 휴스 코넬 디자인 재단을 인턴 디렉터로 일하며 학생들 등 전세계 유망 디자이너들의 지도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다수의 순회전시회를 하고, 카네기 멜론 대학의 새로운 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며 ‘Humanufacturing’이란 주제로 여러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